

# “시·문화기관·전문가·예술가 힘 모아 합리적 방안 마련을”

## 하반기 완공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 어떻게

### 광주시, 직영체제 운영 계획...시립미술관서 업무 맡아 문화계 점진적 이관 목소리도...안정화맨 법인 위탁 고려

광주시 남구 구동에 건립공사가 진행 중인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인 'AMT'(미디어아트 플랫폼·Art & Media Technology 센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 완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AMT와 관련된 운영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역 문화계의 관심이 높다.

당초 AMT 설립목적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 공간으로, 세계와 교류하는 허브 공간을 통해 미디어아트 창작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또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연결해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이에 따라 AMT 운영과 관련 문화거버넌스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며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각 분야 예술가와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 더 킹 빈 매미경 대표는 “어느 국가나 지역이나 독특한 사회문화적 제도와 관행이 있다. 어느 분야는 관 주도로 신뢰성을 확보하며 진행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민간이 맡아서 운영하는 쪽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특히 미디어아트 플랫폼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시와 문화기관, 전문가, 예술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미디어아트 플랫폼이 완공되면 시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미술관 직영 형태, 다시 말해 분관 운영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요성 문화도시정책관은 “정책적 분야는 시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디어아트나 AMT는 전문 분야로 기술, 산업, 예술 분야가 융합돼 있어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필수”라면서도 “시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AMT를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12년부터 미디어아트 관련 실질적인 사업을 이끌어온 광주문화재단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어떻게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인지로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문화재단에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업무 담당자가 11명이 있으며 이들은 문화와 예술, 국제 교류 분야를 맡고 있다. AMT를 초기에 안정화시키고 플랫폼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과 노하우를 연속성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문화재단이 그동안 쌓아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간 연대와 유기적 관계를 업무의 상징성, 확장성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지도 중요한 사안이다.

황봉년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사업 주체인 시가 AMT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오랫동안 문화재단이 미디어아트 업무를 맡아왔고 전문가를 비롯해, 실적과 노하우가 있으니 AMT를 운영하는 데 조화롭게 참여하는 방안이 협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문화재단의 실제 역할과 부담이 따로 있을 것이며, 특히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대중성 측면에서 문화재단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AMT 운영과 관련 시와 문화재단의 한시



올해 하반기 광주 남구 구동에 완공 예정인 미디어아트 플랫폼(AMT) 조감도

공동운영이나 점진적 이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2년 12월 AMT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여건에서는 직접 형태 운영이 적절하지만, 향후 창의도시 사업이 궤도에 오를 경우에는 재단법인 위탁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와 궤를 같이한다.

지역 문화관계자는 “초창기에는 문화재단이 시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특수 법인이 설립되면 위탁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유럽문화수도로 뽑혔던

오스트리아 창의도시 린츠를 예로 들었다. “미래 박물관”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가 아트와 테크놀로지 조화를 토대로 다양한 결과물을 사회와 공유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다. 아트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견인할 예술가와 엔지니어의 소통과 협업, 나아가 결과물을 공유하는 데 있어 지역과 활발하게 소통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자치경찰위, 지역현안 논의...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광주시와 경찰청,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실무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 정성배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 임명 어려울 듯

###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정성배(53)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의 임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남 있었던 정성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개인적으로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남 인사청문회를 했던 광주시의회의도 정 후보자에 대해 “광주복지연구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낙제점을 줘서 사실상 임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의는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통해 “경력과 이력은 높이 평가되지만, 전문성과 철학, 소신 등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다수의 전입 이력과 고액의 채무 문제 등을 들며 “복지연구원장은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나 후보자의 윤리 의식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평가와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 결과 후보자가 광주복지연구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낙제점을 줬다. 시의회의는 22일 임시회에서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이용섭 시장이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앞서 정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39차례 전입과 본인·배우자 소유의 18억대에 이르는 다수의 부동산, 10억대 규모의 금융권 대출금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ICT서비스형 등 관광 신산업 육성 속도

### 예비 창업자 10팀 자금 지원

전남도가 잠재한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비 창업자 10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전남관광 신산업 창업 지원사업’을 도입해 추진한다. 새로운 전남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자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창업 실무교육을 받은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심사에 모두 2억원의 최종 사업화 자금을 받을 대상자를 선발했다. 지원 사업은 분야별로 ICT(정보통신기술) 관광 서비스형 2개, 지역 콘텐츠 체험형 3개, 지역 관광시설 기반형 3개, 지역 특화자원 활용형 2개다. 미래 전남 관광산업 생태계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CT 관광 서비스형의 경우 기존 로컬 여행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광상품 구성, 예약, 운영을 지원하는 윈스톱 관광 서비스 플랫폼을 지원한다. 또 전남의 수려한 비경을 배경으로 인플루언서 중심 포토존 스팟 검색 앱을 개발하는 ICT 기술 융합 사업도 포함됐다.

지역 콘텐츠 체험형은 지역문화와 결합한 상품이다. 나주 인력거 관광투어 체험 후 국악 전공자가 남도의 전통 국악콘서트 공연과 국악기 제작 등을 상호 연결한 체험상품을 운영한다.

지역 관광시설 기반형은 해양과 농촌 체험 등으로 힐링하는 전남 블루 투어 상품이다. 완도 명사십리의 펜션 단지를 장애인 특화 치유 먹거리 등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3만여 평 규모 숲에서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과 결합한 숲 체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광주시에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에 선정돼 33억9천만원을 확보해 이뤄지게 됐다. 대상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 지난 16개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내년까지 내·외벽 단열재 교체,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보일러 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등을 한다.

에너지 효율, 생활환경, 미관 등을 신축 건축물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는 7억원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을 리모델링했다.

이번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생활환경이 개선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교직원 등 취약계층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 개원 19주년!!

2021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